



# 국내뉴스

## 제주 愚堂도서관 개관

제주愚堂도서관이 2월 17일 신축 개관되었다.

이 공공도서관은 제주도 건입동 510번지에 사라봉공원 모충사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7천평에 연건평 1,692평이며, 열람석 1,000석의 현대식 도서관 건물이다. 이 도서관은 (주)대우 김우중 회장이 신축하여 기증한 것으로서 김희장 부친의 아호를 따서 도서관명칭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 경기도립 果川도서관 개관

경기도립 果川도서관이 2월 24일 경기도 시흥군 별양동에서 신축 개관되었다.

이 도서관은 연건평 1,016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총 1,088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이 도서관은 대단위 아파트단지내의 도서관설치 의무화 권장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하여 지역사회에 기증된 것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 KDC 사용키로 결정

국립중앙도서관은 그간 사용해오던 박봉식 편, 한국십진분류법(KDCP)을 한국십진분류법(KDC, 도형 편)으로 바꾸어 사용키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같은 결정은 그

간 사용하던 분류표에 한계성을 느낀데다가 앞으로 전산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분류법의 채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다른 분류표의 사용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KDC를 사용키로 하였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KDC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KDC의 내용보완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 질 것이며 KDC의 발전에 크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日本에 韓國圖書館硏究會 創設

朴熙永회원은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日本 金澤工業大學 圖書館長의 초청으로 渡日하여 日本圖書館界의 主要人士들과 交流하였다.

朴會員은 亞細亞資料간담회(JOLG)에 外賓으로 參席하여 韓國圖書館事情과 韓國의 正月의 民俗行事에 대한 特別講演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亞細亞資料간담회에 韓國部會가 조직되었다고 하는데 同 간담회에는 한국부회를 비롯하여 中國, 東南亞細亞, 南亞細亞, 西亞細亞부회등 5개의 部會가 있다고 한다.

이번 渡日 期間中 日本內에 있는 韓國關係資料所藏도서관들이 따로 모여 「韓國圖書館硏究會」를 創設하였다고 한다. 이 모임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물론 상호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룩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 자료복사 우편봉사업무 실시

국회도서관에서는 소장자료의 전국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자료복사의 우편봉사업무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복사의 우편봉사업무지침과 이용안내문을 각 도서관과 관련기관에 발송하여 이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유하고 있다.

## KORMARC 운영협의회총회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1월 27일 국립도서관 회의실에서 KORMARC 운영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23개관 33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교도서관의 회원영입문제, 인쇄카드 대금납입문제, KORMARC 워크샵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 KDC 보안문제, 기타 목록업무 전산화에 관한 제반사항이 협의되었으며 한국문헌자동화 목록운영협의회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 장서각도서와

### 각종 고문서 정리착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장서각도서와 각종고문서의 해제정리 및 카드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금년부터 연차계획을 세워 藏書閣도서를 해제정리하여 카드화하는 한편 古文書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해보기 어려운 稀貴本을 影印하고 모든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한국학연구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며 전국에 흩어진 개인소장 고문서와 典籍類를 모두 수집정리하여 학

계에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 덕성여대 도서관학과 세미나 개최

덕성여대 도서관학과에서는 2월 24일 미국문화원 강당에서 비도서자료 수업의 하나로 KIT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 강연이 있었다.

- ① “한국도서관사” — 현존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한 한국의 도서관사—
- ② “이조서원문고” — 소수, 도산, 옥산 서원에 대하여—
- ③ “고서제본의 형태” — 권자본, 절첩장, 선풍엽, 호접장, 포배장, 선장 등의 고서제본 상태연구—
- ④ “서양도서관사”
- ⑤ “도서관비품” — 기능과 장단점에 대하여—

## 사서자격증 발급 현황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된 후 1963년 12월말 현재까지 발급한 사서자격증은, 정사서가 3,325명, 준사서가 6,310명 이다.

이는 초창기에 본 협회가 주최한 자격취득강습회의 이수자와 그후 설치된 대학의 도서관학과 및 각종 교육기간에서 배출된 사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류동열會員 政府훈장 받음

류동열 회원(서울대학교도서관 수서

과장)은 정부로부터 녹조근정 훈장을 수여 받았다. 류동열 회원은 그간 서울 대학교 도서관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우리 나라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도서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 대한도서관연맹총회 개최

대한도서관연맹(회장 엄대섭)은 2월 24일 국립중앙도서관 역삼분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 연맹의 4대 목표를 정하고 임원진을 보강하였는데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88올림픽을 앞두고 시, 군, 구마다에 공공도서관 설치를 촉구한다.
- ② 공공도서관 운영을 학생공부방 제공으로부터 주민을 위한 자료대출 위주로 개선토록 촉구한다.
- ③ 중앙행정조직에 도서관전담부서를 설치토록 촉구한다.
- ④ 문교부행정과 내무부행정으로 2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소관청의 1원화를 촉구한다.
- ⑤ 사회각계에 자동차도서관 설치를 촉구한다.
- ⑥ 공공도서관의 입관료 폐지를 촉구한다.

### 김영수회원 渡美

김영수회원은 도서관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도미하여 현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서 수업중이다.

김영수회원은 서울신학대학 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부회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 경상전문대 4년제대학으로 승격

경상전문대(광주소재)가 금년 신학기부터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여 광주개방대학으로 학교명칭이 바뀌었다.

이 대학에는 도서과학과가 있으며 4년제 대학승격에 따라 도서과학과 학생들도 학사학위(정사서자격)를 받게 되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임원개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월 6일 회장단 임기만료에 따라 제36대 회장단을 구성하였는데 신임회장에는 林仁圭 동아출판공사 대표, 부회장에는 尹炯斗 범우사대표와 權炳喜 지학사대표 및 鄭海相 겸지사 대표가 각각 선출되었다.

신임 林仁圭會長은 충남당진출신으로서 휘문출판사 전무, 명휘학원이사, 출판협회장, 출판금고 이사, 독서신문사 이사 등을 역임한 전문 출판인이다.

### 도서관의 평생교육

전통찾는 문화국민